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여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내 백성이여 들으라

(시편 81:1-1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행치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시의 표제 중 ‘깃딿’은 즐거운 가락을 뜻하는 것으로 절기를 위한 노래의 곡명을 말합니다. 절기에 부르기 위해 씌어진 본 시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권면합니다.

1. 예배에의 부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1절).

본 시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회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연합하도록 부르고 있는 목사처럼 1절에서는 모든 회중을, 2절에서는 성전 음악을 책임진 레위인들을, 3절에서는 나팔 부는 과업을 맡은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특별히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예배한 죄를 경고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하는 회중이 있는 가 하면 한편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라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7절).

본 시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애굽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6-7절). 백성들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셨고 바로의 벽돌 굽는 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억압을 보셨고 마침내 돌보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크고 비밀한 사건이며(렘 33:3),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 일이었습니다(사 48:6-7). 시인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시키므로 감사한 마음을 자아내게 할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3.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경고

시편 81편은 예배에로 부름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라는 것, 백성의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내용, 백성의 불순종과 비극적인 결과, 백성이 바뀌지 않음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 백성의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책망은 본 시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십계명에서 출발되어 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신 32:12),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신 32:16). 이 모든 말씀은 율법 위에 율법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궁극적 목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정의로운 인간사회를 위한 신학적 기초인 것입니다.

4. 과거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않았다’(11절)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행치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세속 문화 속의 신들, 곧 부와 쾌락과 명예와 신분과 자기 성취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며, 아름다운 말과 감동어린 음식으로 기도는 하지만 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상을 버리시듯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므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중등부, 청년 1·2부 겨울수련회 이번 주간에 열려

- 중등부: 1월21일(월) - 23일(수) 연동 강화 수양관
- 청년1부: 1월25일(금) - 26일(토) 같은 수련원
- 청년2부: 1월25일(금) - 26일(토) 예담소

우리교회 중등부와 청년 1, 2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열린다. 중등부(부장 김시환 집사)는 1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연동 강화 수양관에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중등부'를 주제로, 청년1부(부장: 김광룡 집사)는 1월25일(금) - 26일(토) 같은 수련원에서 '영혼사랑의 열정을 품어라!'를 주제로 그리고 청년2부(부장: 전광영 집사)는 예담소에서

'청년이여, 다시 태어나라!'를 주제로 각각 열린다. 이번 겨울수련회의 강사로는 중등부 이태훈 목사, 청년1부 정수길 목사, 최영수 목사, 청년2부 이태훈 목사가 각각 서게 된다. 추운 겨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 가슴을 녹이며 새해를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전도하는 중등부와 청년 1,2부 되도록 기도한다.

이단사이비 실체의 특강

2월 1일(금)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심영식 장로(한국기독교 이단문제 연구소 이사장)를 강사로 2월1일(금)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항상 우리를 미혹해온 이단은 현재도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에 우리를 미혹케 하는 이단을 바로 알고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특강을 준비한다.

모든 서울교회 성도 (전도회원, 선교회원, 전도대원, 교구의 모든 가족)는 이번 특강에 참여하여 이단을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카자흐스탄 선교대회 열려

1월 29일(화) 오후 2시 - 우리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현지에 파송한 선교사(8가정, 16명)가 참석하여 급변하는 카자흐스탄 현지 사정의 이해와 대처방법 그리고 구 소련권 선교 요충지로서의 카자흐스탄의 역할과 방안을 모색하는 선교대회가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카자흐스탄 선교대회는 카자흐스탄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담당자, 선교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1월 29일(화) 오후 2시에 열려 30일(수) 오전까지 계속된다. 특히 30일(수) 수요1부 예배 시간에는 참석한 선교사들이 특송을 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서울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도록 기도한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



3사단 장병들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 행사'가 지난주일(13일) 찬양예배 후 801호 만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교회 자매부대인 3사단, 육군사관학교, 6군단, 간호사관학교, 706특공연대, 해병교육사령부에서 64 명의 장병들이 참석하여 찬양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1월20일(주)-2월24일(주) 오후 3시30분 - 609호

제2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가 1월 20일(주일)~2월 24일(주일), 매주일 오후 3:30에 609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수길 목사가 서며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 도고의 실제 등을 배우게 된다.

한편 1기 설교사역도고 수료자들은 현재 주일에 배 시간에 맞추어 402호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중운 위임목사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2기 과정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더욱 뜨거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한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 2020운동을 후원하시는 성도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명단>

김경태(김민태), 김권집(왕경애), 김철호(안미경), 박순옥, 이순형, 임충식(신선주), 한홍연(천승현), 홍석현, 황병석(김영숙), 한나전도회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김수정, 김명숙, 김대웅, 김연옥, 김태기, 김인수, 김영정, 김명심, 김태삼, 고아라(고요한), 고석규(한치중), 김영호, 김유경, 강수남, 노영환, 노송성(이영옥), 민해정, 민정이, 박정수(김경옥), 방호철, 박화실, 박상희, 손재결, 성선규, 안미경, 이민화, 이운영, 오영자, 이경구, 유근중, 유승순, 유관모, 이승희, 오광환, 장기숙, 조정옥, 정희순, 장정화, 장덕, 차영도, 최죽희, 최광성, 황보주자, 홍석현, 한나전도회, 황선철, 한상준(임명숙), 홍창배 (다음 주 계속)

금주의 성구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1-3)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 Endure hardship with us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2 Timothy 2:1-3)

청지기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맡은 일 잘 감당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될 것을..



이인선 장로 (식당관리부)

2008년 청지기 수련회를 통하여 시간, 재능, 소유, 재물 등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그를 섬기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또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 관리부는 주님 말씀 그리워서 또 주님 만나기 위해 몸 되신 서울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식사 대접하는 영광된 일을 모든 식당 봉사자(청지기)에게 믿고 맡기신 부서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게 관리하며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또 맛있게 정성을

다하여 조리하겠습니다. 서울식당 건강식을 드시면서 성도들 간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식당 이용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모든 봉사자들이 맡은 일 잘 감당하여 다섯 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결심하며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장낙희 권사 (5교구 간사)

일상 그렇듯이 지난 년 말도 바쁜 생활을 핑계로 회개와 감사도 없는 가운데 소용돌이치듯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나갔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청지기 수련회로 한 주간 주어졌습니다. 비교적 먼 곳에서 새벽기도시간을 맞춰 가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섣뜻 결심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불러주시고 강권하심을 깨닫고 참석하였습니다.

종직자의 사명과 자세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무거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가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할 최고의 사명은 "전도"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한 번 자신의 전도

생활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언제나 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지나주 말씀을 한 번 더 되짚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교사로서 배우는데 힘쓰는 자로,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신수집사 (중등부 부임)

우리 서울 교회는 교회 학교 10,000명 이상 출석을 목표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학생이 되어 1부 예배 후(2부예배 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말씀 공부 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엿보면서, 선생

님들께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느끼면서 내 모습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어느덧 교사 교육을 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서 영아, 유아,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청, 장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단계적으로 좀 더 정확한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교사로서 배우는데 힘쓰는 자로,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믿

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데 역할을 감당하며 배우는 학생들의 본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서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10시 성경공부에 꼭 참여하시어 항상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박미숙 집사 (루디아 회장)

주님! 진정 당신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 감사하나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과 같이’ 내게는 향유를 담은 옥합은 없지만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칠 것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다.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능력의 하나님! 믿음, 사랑, 희생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

가 떠나가듯 별이 되어 영원히 비추는 부름 받는 자가 되어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녀로 삼으셨아오니 당신의 사랑에 빛진 자입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한 증인으로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있사오니...

천국시민양성 - 청년2부

"Born Again"

2008년 서울교회 청년들이 2개의 부서로 나누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맞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교회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하여 1월 25일~26일 가평 예담소에서 "Born Again"을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982년생~1979년생 그리고 그 밖의 청년들 중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변의 청년들 중에 아직 부끄러워 청년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가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권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2008년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를 이루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아봅시다

이단 사이비의 실체 - 신천지교회(무료성경신학원)

장석남 목사(전도목사)

장을 펼친다.

"단 5개월에 신학 전 과정을 전액 무료로 교육합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대한선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라는 그럴듯한 단체 이름으로 일부 기독교 신문에 끼워 넣거나, 직접 광고하여 기성교회의 교육이나 집회로 오인케 하여 기성교회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단 단체가 있다. 이들은 '시온 기독교신학교', '로고스 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기독교 신학원' 등 다양한 이름을 시시때때로 바꾸어 가며 사용해 기성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에 신천지 교회가 무료성경신학원의 시발점이다. 이단 교주 이만희는 1931년 생으로, 장막성전(교주 유재열, 당시 17세)에 입교하여, 교주를 추종하다가 분립하여 1980년 안양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을 설립하고, 무료성경신학원을 만들어 세력확장에 나섰다.

그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배우고 교육받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야 진짜 목자라는 주장을 한다. 그의 이단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경론: 소위 직통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의 진상'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며, 천국의 비밀을 기록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인류 제일의 책이라는 해괴한 주

2. 구원론: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 새노래를 배워야 거듭나고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의 사자인 교주를 만나서 증거 받고 신천지 증거 장막과 거룩한 성을 알아야 천국에 가며, 신천지 장막에 소속되지 않은 교인은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3. 신론: 오늘날 보혜사의 입장으로 오시는 사명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가 바로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라 주장한다.

요즘 신천지이단의 소위 '추수꾼'이라는 열성분자들(일부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 전역에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침투해 함)이 조직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성도들을 빼내어 가거나,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거나, 의도대로 안 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경계와 주의가 요망된다.

이단을 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명료하다. 이단의 명칭을 익혀 이런 곳에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관심을 갖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21:10-11)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원 김지영(김재중 성도, 김유경 집사 자녀)양의 바이올린독주와 단국대 손수오 선생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김지영양은 현재 Oberlin Conservatory of Music 3학년 재학중이며 "주님을 신뢰해" 외 1곡으로 영광을 돌리며, 베이스 바리톤의 손수오 선생은 단국대학교대학원을 졸업 후 Maryland University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단국대학교에 출강하며 프리모 여성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으며, "작은 영혼"외 1곡으로 영광을 돌린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4일(목) 기독교 학술원 임원회에 참가한다. 25일(금) 대전 서노회 목사·장로 수련회에서 특강을 한다.

■ 여전도연합회 강남노회 임원단 세미나 : 1. 24(목) 오전 10시 30분(소망교회 선교관)

■ 개원: 김삼연 집사, 변은영 집사(8교구) 성심케어센터(노인요양전문복지시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47-13 (T.032-507-8237) 1월 26일(토) 오전 11시

■ 특남: 우도현, 송지윤 집사(1교구)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1.20) 빌립선교회(1.27)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과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